박원순, 노동·안전에 '방점'… 청소노동자 격려로 첫 행보

청소노동자 쉼터·교통 상황실 등 오전 1시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1시 15분 답십리역 청소노동자 쉼터를 찾아 티타임을 갖고 있다. /박원순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첫 행보의 방점을 '노동과 안전'에 찍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오전 1시 15분 답십리역 청소노동자 쉼터를 찾아 격려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상황실을 방문해, 교통안전을 위한 지하철 선진화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는 등 지하철 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못했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 뼈아픈 구의역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훨씬 더 우리가 노력했고 그만큼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사들 밤낮없이 다니면서 일종의 공황장애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처우)을 제대로 못해줬던 것에 대해 반성도 된다"며 "서울시장으로 복귀한다면, 노동조합 측이나 경영진과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지하철의 노후화된 시설을 잘 챙겨 훨씬 안전하고 선진화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만들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오전 2시 40분에는 평화시장을 방문해 전태일 동상 앞에서 상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박 후보는 노동자 대상 공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 지원 ▲신속한 임금체불 조사·해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다.

그는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현생 '노동(권익)복지센터'를 '노동자 지원 종합센터'로 개편하고 25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센터는 노동조합 지원과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서울형 노동자 위원회인 워커 라운드(Worker Round)를 설치해, 다양한 노동자의 요구를 센터와 행정 주요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게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적극적인 노동조합 설립 지원과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해 노무사와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가진 '근로감독권한' 가운데 임금체불 조사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과의 연계로 임금채권 구상권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내버스 노사정 일자리 나누기 협약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떠나자! 바다로~" 해수욕장 오늘부터 개장

부산 해운대·송정 등 오늘 문열어
대천 16일·제주 협제 등은 23일
곳곳서 축제·가요제 등 행사 펼쳐

해양수산부는 전국 260개 해수욕장이 올해 여름 개장시기를 확정하고, 6월 1일부터 차례대로 개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해수욕장 중 가장 빠른 6월 1일 개장하는 곳은 부산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부산)이다. 이어서, 6월 16일 충남 대천, 6월 23일 제주 협재 해수욕장 등이 문을 열고, 전남 송이도 해수욕장이 가장 늦은 7월 21일 개장 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 창원의 광암 해수욕장은 2002년 폐쇄 이후 16년 만인 오는 7월 7일부터 재개장 예정이다.

21시 이후까지 야간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51개소이다. 경포, 주문진 등 강릉시 9개 해수욕장과 낙산, 하조대 등 양양군 21개 해수욕장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개장할 예정으로 하루 개장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다.

개장 기간 해수욕장에서는 공군 블랙이글 에어쇼(강릉 경포), 모래조각 경연대회(태안 몽산포), 부산바다축제(부산 해운대), 울산조선해양축제(울산 일산), 국제불빛축제(포항 영일대)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진다.

이외에도 콘서트, 가요제,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조개, 오징어 잡기 등 체험행사, 해변가에서 열리는 발리볼, 축구, 마라톤, 복싱, 프로격투기 등의 대회도 열려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우선 지난 29일 지자체와 해경,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안전장비와 안전인력 운영 계획을 집중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개장기간 동안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오정우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올 여름 개장하는 260개 해수욕장은 각각의 개성과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수욕장을 찾아 호젓하게 휴가를 즐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해수욕을 즐기시고, 음주 입수 등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260개 해수욕장별 개장기간, 부대행사 등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모습. /서울시

'노란 발자국'으로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

서울자원봉사센터, 교통안전 캠페인

서울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 주변 횡단보도 앞에 스몸비 청소년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노란 발자국'이 생긴다.

횡단보도에서 약 1m 떨어진 보도 위에 눈에 잘 띄는 노란색 발자국을 새겨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바닥으로 떨군 청소년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스몸비(길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 '양옆을 살펴요!'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횡단보도 앞 노란 발자국은 시야가 좁은 청소년들이 옆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인식하도록 하고, 횡단보도로 바로 진입하지 않도록 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경기 남부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노란 발자국을 그린 지역에서 약 53%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승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 '양옆을 살펴요!'를 통해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관심을 두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통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우리 구청 소식

종로구 '종로사랑 87' 모집

서울 종로구는 주민 정책평가단 '종로사랑 87'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 정책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도와 종로구의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평가 과정에 참여해 온·오프라인으로 구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한다.

평가단은 민선7기 4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평가단 회의와 토론회 참석 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종로구에서 활동하는 중학생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1~30일까지이며, 종로구청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연령·지역·성별을 고려해 87명을 선정해 7월 중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홈페이지나 종로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종로사랑 87' 활동을 통해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 행정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더욱 살기 좋은 종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모습. / 마포구

마포구,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점검

서울 마포구는 오는 6월까지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대형건축공사장, 도로사면, 공동주택 등 총 218개소다.

대형건축공사장은 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무단 또는 초과 점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한다.

공동주택은 시설물 침하, 균열·붕괴 가능 여부, 보수·보강이 끝난 재난위험시설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구는 6월 20일까지 관내 공공주택 158개 단지, 6만2113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김현정 기자

소상공인 지원 '상권분석 빅데이터' 경진

서울시, 29일까지 신청·접수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서비스 모델을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제2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대회를 통해 서울시 2개 자치구의 실제 상권분석 빅데이터 28종과 KB국민카드의 카드소비 데이터 2종을 활용해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대회과제는 '상권분석서비스 모델 개발 및 고도화'다. 최대 3인 이내로 구성된 국내 대학(원)생, 일반인(교수, 연구원, 업체 관계자)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분석 소프트웨어 솔루션 관련 분야를 비롯한 일반 기업 소속 임직원도 참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6월 1~29일이며, 홈페이지(www.상권분석빅데이터.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50개 팀이 본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5개 팀을 선정한다. 최우수상에는 400만원, 우수상에는 200만원, 장려상에는 100만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상권분석서비스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